

## 크립키의 고정 지시 이론 비판 및 해석학적 확률론

윤성노\*

### [국문초록]

이 글은 크립키의 고정 지시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양자역학, 인지과학, 신수사학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먼저 러셀의 기술주의적 지시 이론을 도입해 1, 2차 발생의 차원에서 명제내용을 기술한 다음 고정 지시가 무엇이고 크립키가 왜 고정 성과 필연성의 정도 차이를 이야기하는지 설명한다. 이것이 본고의 1부를 구성한다. 2부는 크립키 이론의 문제점들을 논하는 데 할애된다. 먼저 직접 지시 이론과 러셀 식 기술주의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크립키 자신이 어떻게 고정 지시 이론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지 보여주고, “셋별과 개밥바라기는 같은 별이다”가 어떻게 선형적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지 설명한다. 또한 진화론적 관점을 취해 단어로 의미된 사물의 정체성이 어떻게 범주적으로 모호한지 논하고, 단어를 사물의 종속변수로 간주하는 유명론과 자아 중심적 언어관을 비판한다. 아울러 대상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주제어: 명제, 언어놀이, 퍼지성, 양자, 원형, 은유  
proposition, language game, fuzziness, quantum, prototype, metaphor

에 부여되는 범주의 지각속성, 술어작용을 표상하는 명제의 논리적 성격, 명제를 표현하는 언어의 의미자질, 그리고 명제에 대해 언어 사용자들이 취하는 사회-문화적 태도를 세심하게 구분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논함으로써 언어현상을 기술하기보다는 규범화하려는 철학적 의미론의 한계를 보여준다. 3부에서는 전자의 속성, 원형이론, 인지 메커니즘으로서의 은유 개념을 토대로 해석학적 확률론의 가설 타당성을 논증하고, 결론부에서는 말, 사물, 마음의 관계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다섯 항목으로 정리한다.

## 1. 고정 지시 이론

### 1.1. 지시와 의미

러셀<sup>1)</sup>에 따르면, 모든 명제는 의미와 지시로 나누어 파악해야 한다.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다”라는 문장에 표상된 명제를 예로 들자면, 지시는 표현에 상응하는 대상, 즉 오늘날 프랑스에서 대머리 왕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제의 진리 값은 거짓이다. 현재 프랑스는 왕이 없는 공화국 체제이기 때문이다. 명제로 지시된 실제 대상을 러셀은 명제의 1차 발생이라 부른다. 반면, “의미는 오늘날 프랑스에 실제로 대머리인 왕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있지 않다.  $x$ 가 있고  $x$ 는 현재 대머리 프랑스 왕이며 어떤 가능세계에 현재 대머리인 프랑스 왕( $x$ )이 있다는 것이다.”<sup>2)</sup> 이를 형식언어로 표현하면  $(\exists x)(Kx \cdot (y)(Ky \supset (x=y)) \cdot Bx)$ 다. 주지할 점은 양상논리에서는 배중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와 명제 부정을 통해 얻는 모순 항이 서로 다른 두 가능세계

1) Russell, B. (1905), “On Denoting”, *Mind*.

2) 윤성노(2015), 「복잡계로서 단어의 의미론적 정체성에 대한 학제적 연구—구조의미론, 분석철학, 해석기호학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44, 한국기호학회, p. 193.

에서 동시에 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프랑스 역사 소설 <삼총사>를 각색한 영화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관련 문장을 말했고 영화 장치를 통해 의미론적으로 구축된 세계에  $x$ 가 존재하며  $x$ 가 현재 대머리 프랑스 왕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가 참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가상세계에서는 “현재 프랑스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가 참일 수도 있다. 두 가능세계에서 특이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지각대상( $x$ )을 러셀은 명제의 2차 발생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본고의 주제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질문은 “샤를 2세”(고유명사)와 “대머리 프랑스 군주”(한정기술표현expression of definite description)<sup>3)</sup>가 같은 뜻이냐이다.

러셀은 서프랑키아 군주를 이야기할 때 “샤를 2세”와 “대머리 프랑스 군주”를 동의어라고 생각하겠지만, 크립키<sup>4)</sup>는 고유명사와 한정기술표현의 의미를 동일시하는 기술주의적(descriptivist) 지시 이론에 반대한다.

3) 실제로 “대머리 프랑스 왕”으로 불린 군주가 있었다. 서로마제국 멸망 후 유럽을 다시 통합한 샤를마뉴 대제(Charlemagne le Grand)에게는 세 명의 손자(장남 로타르 Lothaire 1세, 차남 루이Louis, 후처 소생 막내 샤를Charles 2세)가 있었는데, 나중에 “서프랑키아”(Francie occidentale)의 군주가 된 샤를 2세의 별명이 바로 “대머리 왕”(Charles II le Chauve)이다. 할아버지가 사망한 다음 손자들 사이에는 제국의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벌여졌는데, 교황청이 중재자로 나서 형제 간 분쟁 해결을 위해 843년 “베르딩 조약”(Traité de Verdun)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동맹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막내와 차남에게는 각각 오늘날 프랑스를 포함하는 “서프랑키아”(Francie occidentale)와 독일을 포함하는 “게르마니아”(Germanie) 영토를 나누어 주고, 패한 장남에게는 두 지역의 완충 지대인 “중부프랑키아”(Lotharingie)를 할당되었다(참고로, 영토 분배는 언어권을 경계로 이루어졌는데, 가령 서프랑키아는 언어계통학적으로 로만스어파에 속하는 지역으로 민중들은 고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후 중부프랑키아는 패권경쟁에 밀려 소멸하고, 서프랑키아와 게르마니아는 오늘날 프랑스와 독일 영토의 초석이 되었다(윤성노(2016), 「복잡계로서 문화 연구를 위한 범시적 언어 연구—차용어를 통해 본 프랑스적 다양성—」, 『프랑스학연구』 75집, 프랑스학회, pp. 36-37).

4) Kripke, S. (1980), *Naming and Necessit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1.2. 고정지시어

예를 들어, “개밥바라기”는 금성을 지칭하고 금성은 달을 빼면 저녁에 뜨는 별 중 가장 밝다. 그렇다면 “개밥바라기”(a)와 “달을 제외하고 저녁에 뜨는 가장 밝은 별”(b)은 같은 뜻인가? 항상 그런 건 아니다. 황사로 하늘이 뿌연 날에는 “달을 제외하고 저녁에 뜨는 가장 밝은 별”이 금성이 아니라 가령 화성일 수도 있다. 이렇듯 a와 b를 교체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크립키는 전자는 “고정 지시어”(rigid designator)<sup>5)</sup>이지만 후자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up>6)</sup> 고유명사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동일한 개체 (designatum: 금성x)를 지시하지만 한정기술표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sup>7)</sup> 크립키가 기술주의에 반기를 드는 또 다른 이유는 러셀이 고정지시어와 그렇지 않은 표현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실패하는 것 말고도 “원리상”(de jure) 고정지시어와 “사실상”(de facto) 고정지시어를 혼동하기 때문이다.<sup>8)</sup>

“세종”(a)과 “태종 이방원의 후계자”(b)를 예로 들어보자. 크립키에 따르면, b’는 묘사된 속성(왕권 상속자)에 따라 ‘세종’(대상x)을 지칭하는데 비해, a’는, 언어를 통해 대상에 어떤 속성이 부여되는지와 무관하게,

5) 언어 연구 분야에서는 “생산적(productive) 지시”의 대립 개념으로 이미 “고정(fixed) 지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Yule, G. (2014), *The study of language*,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fifth edition), pp. 10-11.) 고정 지시란 그 의미가 맥락 의존적인 기호(sign)로 동물의사소통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호음이 대표적이다. 또한 rigid는 ‘경직된’, ‘딱딱한’ 등을 뜻하는 라틴어 rigor가 그 어원이다. 그래서 예컨대 “rigor mortis”는 라틴어로 사체의 뻣뻣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필자는 현상 이면의 본질을 직시할 수 있도록 사건(언어로 지시된 대상이나 상황은 그중 하나다)을 다채롭게 만드는 것, 말하자면 체계적이지 않고 우연적이며 혼란스러운 것들을 ‘엄밀하게’ 견어낼 필요성이라는 뜻으로 rigid를 이해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언어철학에서 통용되는 고정지시어보다는 ‘엄밀지시어’가 rigid designator에 대한 더 나은 대응어라고 생각하지만 본고에서는 학계의 관행을 따르기로 한다. 다만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엄밀하게’라는 표현을 병행하고자 한다.

6) Ibid., p. 78.

7) 정대현(2001), 『필연성의 문맥적 이해』, 한국학술정보, pp. 57-59.

8) Kripke, Ibid., p. 21.

$x'$ 를 지시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 제기되는 물음은 이렇다.

$a'$ 로  $x'$ 를 직접 지시하는 것과  $b'$ 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모든 가능세계에서 항상 동일한 대상을 엄밀하게 지시하는가? 그렇긴 하지만 고정성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게 크립키의 입장이다. 즉,  $a'$ 는 원리상 고정지시어이고,  $b'$ 는 사실상 고정지시어다.

### 1.3. 우연과 필연

이처럼 크립키는 고정성의 관점에서 상이한 유형의 표현들, 즉 고정지시어(a)와 고정지시어가 아닌 표현(b), 원리상의 고정지시어(a')와 사실상의 고정지시어(b')를 구분하는 데, 이런 구분은 소위 “동일성 언술”(identity statements)이 제기하는 진리의 문제를 풀 때에도 도움을 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a와 b는 x를 지시한다”라는 문장이 항상 옳은 건 아닌 이 유는 문장에 표상된 명제의 진리 값이 진리 조건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진리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진리 값을 크립키는 “우연적” 진리라 부른다. 그렇다면 필연적 진리도 있다. “개밥바라기=새별”이라는 동일성 언술처럼, 모든 가능세계에서 항상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두 고유명사를 동일시하는 언술의 진리 값이 그렇다. 주목할 점은 고정성처럼 필연성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원리상 고정지시어들(새별)과 “개밥바라기”)을 동일시하는 건 “강한” 필연적 진리를, 원리상의 고정지시어(“세종”)와 사실상의 고정지시어(“태종 이방원의 후계자”)를 연결하는 건 “약한” 필연적 진리를 표상한다.<sup>9)</sup> 고정성 개념으로부터 우연과 필연을 분별하는 크립키의 추론과정이 흥미롭긴 하지만 그의 독창성은 다른 데 있다.

크립키가 고정성 이론을 세상에 내놓았을 당시 필연적 진리 논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필연적 진리는 분석명제라고 보는 진영과 필연적 진리

9) Kripke, S. (1971), “Identity and Necessity” in M. K. Munitz (ed.), *Identity and Individuation*, New York University Press, New York, p. 137.

중에는 종합명제도 있다는 진영으로 양분되어 있었지만 분석명제와 종합명제의 종합을 시도하진 않았다. 그런데 고정지시어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항상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면, 그리고 두 고정지시어의 대상을 동일시하는 언술이 참이라면, 필연적으로 참이지만 선험적이지 않은 진리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셋별=개밥바라기”를 통해 형이상학적으로 항상 참(필연)인 것이 동시에 후험적(a posteriori) 진리(우연)를 보여준 것이야말로 크립키의 독창성이라고 평가된다. 사실 올바른 동일성이라면 경험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곳에서조차도 필연적인 것으로 판명이 나와 한다는 게 크립키의 생각이었는데<sup>10)</sup>, 이 언술 분석을 통해 그가 필연적 진리 논쟁에 “놀랄만한”<sup>11)</sup>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받는다.

## 2. 비판

### 2.1. 원리상 고정지시어와 사실상 고정지시어는 같은 뜻을 공유하는가?

대상을 직접 지시하는 표현(직접 지시어)들이 모두 고정지시어라는 주장에 이견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역도 그런가? 즉 모든 고정지시어는 직접 지시어인가? 지시와 의미를 동일시하는 직접 지시 이론가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기술주의자들은 이에 반대한다. 그리고 직접 지시어를 고정지시어의 하위범주(원리상 고정지시어)로 간주할 때 직접 지시 이론을 따르지만 사실상의 고정성을 인정할 때에는 기술주의자처럼 행동한다는 점에서, 크립키는 양 진영에 걸쳐 있다.

필자는 원리상 고정지시어와 사실상 고정지시어가 같은 의미를 공유

10) 데이비드 암스트롱 지음, 유원기 옮김(2015), 『어느 물질론자의 마음 이야기』, 지식울만드는지식, 서문을 참조할 것.

11) Putnam H. (1975), “The Meaning of ‘Meaning’” in *Mind, Language and Re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p. 232.

하느냐를 놓고 크립키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sup>12)</sup> 그런데 이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a'와 b'가 같은 뜻이라면, a와 b가 같은 의미를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러셀의 기술주의를 대신하는 것이 목표인 고정지시 이론의 설득력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같은 뜻이 아니라 해도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다. 이는 원리상 고정지시어의 의미는 지시대상이고 사실상 고정지시어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뜻일 텐데, 그렇다면 고정성의 차이는, 크립키의 생각과는 달리,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 비약의 문제로 보는 게 맞다. 따라서 고정성에 차이를 보이는 표현들이 의미론적으로 동일한가라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입장을 유보한 채 직접 지시와 기술주의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크립키의 이론이 반쪽의 성공이며 이에 따라 그가 러셀의 이론을 폐기시켰다는 견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 2.2. “셋별”과 “개밥바라기”는 동일한 별이다’는 후험적 진리를 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셋별(X)=개밥바라기(Y)”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는 뜻에서의) 형이상학적 필연과 (X, Y가 모두 금성을 지칭한다는 사실이 나중에 천문학자들에 의해 입증되었다는 뜻에서의) 인식론적 우연을 종합하는 명제를 표상하기 때문에 진리 논쟁에 “놀랄만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지만, 필자는 이 동일성 언술이 후험적 진리를 표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장이 후험적 진리를 표상하기 위한 조건은 X, Y 중 하나(X라 하자)가 먼저 사용된 다음에 Y를 처음 만들어낼 때 단어 고안자가 두 고유명사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13)</sup> 고유명사 “세종”과 “이도”를 동일시하는 언술이 그렇다.

12) Kripke (1980), Op. cit., pp. 20-21.

13) 고정 지시 이론에서 제기되는 기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김우진 (2009), 『양상논리와 형이상학』, 서울: 새들녘, pp. 138-141.

‘세종’(대상)의 본명은 “이도”(X’)이고, “세종”(Y’: 정식 명칭은 세종장헌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은 이도 사후 조선과 명나라 신하들이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올린 시호이다. 시호를 결정할 때 신하들이 X’와 Y’가 동일인을 지시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기 때문에 X’=Y’라는 동일성 언술에 묘사된 명제의 진리 값이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이지만 경험적으로 입증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관련 명제가 선험적 진리를 표상한다는 식의 분석이 X=Y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뛰어난 수학과 천문학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달력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한 고대 마야인들이 단어 개법바라기의 고안자이고 단어를 만들어낼 당시 그것이 셋별과 동일한 별을 지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자. 그렇다면 X=Y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동일한 대상을 지시한다는 사실(형이상학적 필연)이 나중에 학자들에 의해 경험적으로 입증될 필요(인식론적 우연)는 없다. 주목할 건 금성을 지칭하기 위해 마야인들이 Y를 처음 만들어내는 상황이 신하들이 세종대왕의 시호로 Y’를 결정할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종과 마야인들의 이야기로부터 필자가 도출하는 결론은 필연과 우연을 관통하는 진리가 공범주일 수 있는 개연성이 여전히 남기 때문에 X=Y라는 동일성 언술이 진리 논쟁에 그다지 “놀랄만한” 결과를 초래한 건 아니라는 것이다.

### 2.3. 개체(군)의 범주 경계는 모호하다

크립키의 제안<sup>14)</sup>에 따라 후학들은 고정지시어 범주에 고유명사와 한정 기술표현뿐 아니라, 지표적(indexical) 표현(“나”, “지금”, “여기”), 물질명사(“금”, “물”), 성질을 나타내는 용어(“붉음”, “시끄러움”), 심지어 일반명사(“호랑이”)나 인공물을 나타내는 단어들(“독신자 신분”bachelorhood, 소다

14) Kripke, *ibid.*, p. 134.

팝 등)도 포함시키곤 한다. 거의 모든 명사가 고정지시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확장된 고정성 이론이 진화론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창조론자들의 주장처럼 생명체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게 아니다. 또한 진화하면 으레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최후까지 살아남은 개체가 모든 것을 취하는 걸 정당화하는 “범적자생존론”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는 인식론적 오류일 뿐이다<sup>15)</sup>. 정작 다윈은 생명체가 주어진 조건에 “산만하고 어설픈게” 적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up>16)</sup>. 중요한 건 불완전한 설계와 어설픈 적응으로 인해 개체(군)가 범주적으로 모호하다는 사실을 예증하는 생명체들의 존재가 고정 지시 이론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물”(언어)의 지시체(사물)는 무엇인가? 산소와 수소의 결합물(H<sub>2</sub>O)인가? 내 가방 안에 있는 생수인가? 수증기나 얼음도 물인가? “물”의 지시체에 대한 범주 판단은 그리 명확하지 않다. 물만 그런 게 아니다. 박쥐는 하늘을 나는 포유류이다. 오리너구리는 포유류이면서도 알을

15) “주어진 환경 속에서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개체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 적응하면서 터득하는 공존의 지혜가 진화메커니즘이 들려주는 메시지라면, 그리고 진화가 우연의 소산이라고 주장하는 “빅뱅설”이 옳다면, 진화는 더 이상 진보적이라거나 목적 지향적(teleological)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이지 않을까의 문제이다.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는다고보다는 운 좋게 마지막까지 남은 개체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 진화의 본질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환경에 필요한 만큼 적응한 대다수 개체들의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자연선택이 작용한다면, 최적의 적응도를 보이는 개체가 그렇지 못한 대다수 개체들의 존재와 권리를 결정하는 관행을 합리화하는 범적자생존론은 오류이다.”(윤성노(2015), 「정의의 관점에서 문화연구자는 문화시장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콘텐츠에 대한 사회기호학적 소고—」, 『기호학 연구』 43, 한국기호학회 pp. 183-184.)

16) “다윈에 따르면, “불완전한” 설계, 절충적인 구조 —어느 정도 잘 움직이기는 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다른 구조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는—야말로 진화를 가장 잘 입증해준다. (...) 다시 말해, 완벽한 적응이 아니라 산만함과 어설픈 역사성의 진정한 표지다.”(게리 술 모슨, 캐럴 에머슨 [공]지음, 오문석, 차승기, 이진형 [공]옮김(2006), 『바흐친의 산문학』, 서울, 책세상, pp. 100-101.)

낳는다. 또한 최근 대한민국을 ‘팬더믹’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다. 크립키는 고정지시어를 통해 모든 가능세계에서 항상 동일한 개체(군)를 지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언어를 통해 지시되는 개체들(물, 박쥐, 오리너구리, 바이러스)은 범주적으로 모호하다. 그렇다면 모호한 개체가 어떻게 모든 가능세계에서 항상 동일할 수 있는가?

필자는 범주 경계가 모호한 개체를 엄밀하게 지시할 수도 없고, 불완전하게 설계되었으며 산만하고 어설피게 적용한 결과 정체성이 모호한 개체(군)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항상 동일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 2.4. 단어는 사물의 이름표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체다

단어 “나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나무’(사물)을 보는 것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크립키는 유명론자다. 단어와 사물의 관계를 놓고 벌어진 『크라틸루스』(Cratylus) 논쟁에서 ‘자연적’ 연관성을 토대로 전자를 후자의 이름표로 간주하는 크라틸루스처럼 말이다. 하지만 의미는 사물의 종속변수가 아니고, 언어를 대상세계의 존재론적 속성으로 환원할 수도 없다.

유명론자와는 달리,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실재’의 연관은 단어의 정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것들은 문법에 속하고, 그래서 언어는 자족적이고 자율적<sup>17)</sup>이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가 대상세계에 앞선다는 의견을 내비친다<sup>18)</sup>:

“우리는 단어 “식물”을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도 어떤 것이 여전히 ‘식물’ 개념에 속하는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수 없이 많은 경계선 상의 경우들을 생각해 낼 수 있다. 이것은, 단어 “식물”의 의미가 다른 모든 경우들에서의 불확실함에

17) Wittgenstein, L. (1974), *Philosophical Grammar*, Rhees R. (ed.), Kenny A. (trans.), Oxford University Press, p. 97.

18) Ibid., p. 117.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 단어를 이해하지 않은 채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몇 가지 측면에서 이 개념을 결속시킨 정의가 모든 문장에서 우리에게 그 단어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하는가? 우리는 그것이 나타나는 모든 문장을 더 잘 이해하는가?”

기존의 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식물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아직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규정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물론 그 사물에 상응하는 명칭도 존재하지 않는다. “‘식물’ 개념(내포intension)에 속하는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 경계선 상의 경우(외연 extension)”이다. 그렇다면 이 모호한 식물의 존재가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물 ‘식물’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던 단어 “식물”의 의미가 무의미해지는가? 비트겐슈타인은 ‘식물’을 보여주는 것은 “식물”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식물’의 모호한 범주 속성이 “식물”을 포함하는 모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단어 “유니콘”에 상응하는 사물이 없다고 단어가 무의미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이에 따라 언어와 대상세계의 관계에 대한 유명론적 전통 철학의 견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 2.5. 철학자는 언어 규칙 제정자가 아니다

프레게는 단어가 지시하는 사물(Bedeutung)과 사물이 단어로 지시되는 양상(Sinn)을 나누고, 러셀은 명제의 1차 발생(현실세계에 실존하는 대머리 프랑스 왕)과 2차 발생(영화 <삼총사>를 통해 의미론적으로 구축된 가능세계에 존재하는 대머리 프랑스 왕을) 구분하며, 크립키는 사실상의 고정 지시(태종 이방원의 후계자라는 속성에 부합하는 대상)와 원리상의 고정 지시(모든 가능세계에서 항상 동일하며 “세종”을 통해 지시된 대상)

를 분별한다. 문장에 표상된 명제, 명제로 묘사된 사물의 상태, 사물의 존재 양상을 구분하는 것까지가 논리학자들의 임무이자 동시에 한계이다. 왜 한계인가?

“셋별”, “개밥바라기”, “달을 제외하고 저녁에 뜨는 가장 밝은 별” 따위의 언어 표현들을 논할 때 철학자들은 종종 의미와 지시를 구분 없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화자의 관점에서 언어현상을 접근하곤 한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sup>19)</sup>은 단어 나무의 정의(definition)에 대한 일치와 함께 명제의 참과 거짓에 관한 개인들 사이의 가치 평가적 ‘판단에서의 일치’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화자의 의도만큼 청자의 피드백 및 사회-문화적 언어 사용 맥락도 대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변수들을 감안해 가며 소통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텍스트’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의미의 본질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자아 중심적 언어관 이면에는 또한 저 밖의 혼탁한 세상사와는 거리를 두고 사고와 언어의 관계를 관찰해야 하고, 관찰자는 관찰대상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언어가 논리에 부합해야 하고 그러자면 철학자가 개입해서 언어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언어는 관조의 대상이 아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게임”의 도구이다. 철학자가 논리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는 사람도 아니다. “철학은 언어의 실제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침해하는 안 된다. 철학은 그것을 기술할 수 있을 뿐이다.”<sup>20)</sup> 따라서 의미가 본질상 대화참가자들이 텍스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역동적 과정임을 포착하지 못하고, 언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게임”의 도구로서 언어의 사용 양상을 오롯이 기술하지 못한다는 게 논리학에 노정된 한계이다.

19) Wittgenstein, L. (1978),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Anscombe G. E. M. and Rhees R. (eds.), Anscombe G. E. M. (trans.), Oxford University Press, p. 242.

20) Ibid., p. 124.

### 3. 대안

필자의 기본 입장은 단어가 확률적으로 지시한다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하 논의는 1) 양자의 세계에서 전자의 속성들에 대해 논하고, 2) 원형이론을 도입함으로써 마음속에서 사물이 어떻게 범주화되는 살펴보며, 3) 진리 표상도구로서 은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할애될 것이다.

#### 3.1. 양자의 세계

##### 3.1.1. 물질이 어떻게 불연속적이고 불확정적인가?

원자는 전자와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핵은 다시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 내부가 바로 양자의 세계다. 양자물리학의 선구자로 간주되는 플랑크(Max Plank)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방출된다는 사실을 밝혔고, 코펜하겐 학파를 이끈 보어(Niels Bohr)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전자가 한 에너지 준위(층)에서 다른 준위로 마치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진행한다고 생각했다. 이른바 “양자 도약”이다.<sup>21)</sup> 그렇다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불연

---

21) 하위 층위에서 상위 층위로 도약하면서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빛을 낸다. 양자의 세계와 그 세계를 구성하는 전자가 불연속적인 속성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빛도 불연속적이다(참고로,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성을 연구한 결과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이루었고, 빛을 다루는 물리학에 부여된 임무 중 하나는 빛을 내는 전자의 불연속성에 대한 명제를 수학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물질처럼 빛도 고유한 파장과 주파수를 지닌다(박영선(2006), 『쉽게 풀어쓴 파동이 이야기』, 예영커뮤니케이션). 고유한 호수에 돌을 던진다고 해보자. 돌이 호수 표면에 닿는 순간 수중에 압력차(충격파)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물 입자들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충돌한다. 물 입자들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파동 에너지(물결)가 바로 광파다. 물결 하나를 하나의 사이클(진동)로 치면,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주기(period)이고, 초 당 진동 수(Hz)는 주파수

속적으로 도약하는 전자는 대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걸까?

하이젠베르크의 지도교수였던 보른(Max Born)에 따르면, 전자는 확률로 존재한다. 여기서 확률은 예측이 아니다.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뜻이다. 존재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양립 불가능해보이고 모순적이기까지 한 것들의 기인한 공존이 가능한 양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도 이해하지 못했다(정확히 말하면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자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양자의 세계에 대한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할 수 없다는 시-공(4차원) 개념과 시-공과 중력 그리고 물질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명제가 핵심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통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양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건 원자 안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게 아니다.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자의 위치를 잴 때에는 그 속도를 모르고 속도를 알면 위치 정보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히 하자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배제의 원리다. 그리고 위치와 속도 정보의 상호 배제를 상보성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어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상보성의 원리라 부른다.

### 3.1.2. 서로 멀리 떨어진 입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불확정성에 대한 반론도 있다. 가령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말로 양자역학에 대한 코펜하겐 해석에 반대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바로 EPR 사고실험이다. 실험 고안자들

---

(frequency)이며, 한 사이클 동안 물결이 이동한 거리는 파장(wavelength)이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파장은 짧아지고 에너지는 커진다. 그리고 파장의 순서에 따라 빛의 성질을 배열한 것이 바로 스펙트럼이다. 가령 보라색은 빨강색보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크고, 빨강색 보다 긴 빛의 파장은 적외선, 보라색보다 짧은 빛의 파장은 자외선이다.

(Einstein, Podolsky, Rogen)의 이름이니셜을 따서 명명된 EPR 실험 내용은 이렇다. 한 쌍으로 얽혀 있는 두 개의 전자 A, B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A, B는 특정 조건 하에 구현되는 양자계의 운동 상태(물질량)를 나타낸다). 둘의 물질량의 합은 0이다. 그래서 A가  $+1/2$ 라면 B는 필연적으로  $-1/2$ 이다. 그런 다음 B를 빛의 속도로도 도달하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진 벨(안드로메다라 하자)로 보낸다. 이제 지구인이 A를 측정할 때 B의 물리적 상태를 관찰한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까?

양자역학에 대한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측정 이전에 A와 B의 상태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1/2$ 이나  $-1/2$ 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두 값이 ‘중첩’되어 있는 비결정 상태이다. 그런데 측정 순간 A가 둘 중 하나의 상태로 결정되며, 또한 A의 상태가 결정되는 바로 그 순간에 B의 상태도 변한다. 지구에 있는 입자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안드로메다에 있는 다른 입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른바 비국소성(non-locality)이다. 비국소성이 중요한 이유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입자들이 마치 유령처럼 서로 원격 작용한다는 “양자 얽힘” 현상을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국소성 현상이 없다면 양자역학 자체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EPR의 가설은 지구인이 A를 측정한 값이  $+1/2$ 이라면 B는 무조건  $-1/2$ 이며, B의 상태는 측정과 관련 없이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설이 옳다면 관찰행위가 관찰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코펜하겐 해석은 B에 일어난 물리적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이론이므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변수를 추가적으로 기술할 이론(hidden-variable theory)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비)국소성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헤게모니 게임처럼 상황이 돌아간다. 이에 벨(John S. Bell)은 벨의 부등식(Bell's inequality)을 통해서 국소성을 유지하려는 숨은 변수 이론과 비국소성을 토대로 하는 양자역학이 양립 불가능함을 증명했으며, 이를 토대로 진행된 실험들은 최종적으로 양자역학의 손을 들어 주었다. 원래 양자역학의 불완전성을 보여주

기 위해 고안된 EPR 사고실험이 오히려 그 가설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기여한 셈이다.

### 3.1.3. 삶과 죽음이 어떻게 확률적으로 공존하는가?

신은 고로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양자의 세계에서는 존재(계system) 자체가 주사위에 기입된 숫자들(여러 가지 가능한 계의 상태)의 파동함수이다. 그리고 특정 조건 하에서 실현되는 계(전자)의 운동 상태들의 중첩을 나타내는 파동함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미분 방정식이 바로 슈뢰딩거 방정식이다. 이는 물질이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는 드브로이(Louis de Broglie)의 물질파 이론에서 영감을 받아 슈뢰딩거가 제안한 미분 방정식으로, 그는 원자핵 주변을 도는 전자가 만들어 내는 파동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방식을 기술하기 위해 그 방정식을 고안했다. 사실 그는 전자가 불연속적으로 순간 이동한다는 양자 도약을 믿지 않았다. 또한 그는 슈뢰딩거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파동함수가 전자의 ‘실제’ 물질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파동함수에 내포된 전자의 물리량을 확률적으로만 기술할 수 있다고 보는 코펜하겐 학파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슈뢰딩거가 1935년 제안한 사고실험이 바로 “슈뢰딩거의 고양이”다.<sup>22)</sup> 문제는 슈뢰딩거 방정식을 이용해 구한 파동함수로서 슈뢰딩

22) “다음과 같이 우스꽝스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고양이 한 마리가 철로 만들어진 상자 안에 갇혀있다. 이 상자 안에는 방사선을 검출할 수 있는 가이거 계수관과 미량의 방사성 원소가 들어 있다. 방사선 원소의 양은 아주 적어서 한 시간 동안에 한 개의 원자가 붕괴할 확률과 한 개도 붕괴하지 않을 확률이 각각 50%이다. 만약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 가이거 계수관이 방사선을 검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스위치가 작동되어 망치가 시안화수소산이 들어있는 병을 깨트려서 고양이를 치명적인 시안화수소산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 이 상자를 한 시간 동안 방치해 둔 후에 고양이의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양자물리학에서는 고양이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살아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와 죽어 있는 고양이를 나타내는 파동함수의 중첩으로 나타낸다. 다시 말해 고양이는 죽어 있는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혼합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고양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필자의 입장은 이렇다.

상자와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는 각각 양자의 세계와 전자를 뜻한다. 그렇다면 상자 안에 있는 고양이는 죽었으면서 동시에 살아 있다는 의미에서 삶과 죽음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확률적으로 공존한다. 전자가 확률 파동으로 존재하고 A(행)이면서 동시에  $\sim A$ (모순 행)가 아닌 것이 ‘기이하게’ 공존하는 양자의 세계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통하지 않는 세계이다. 3,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상자를 열고 고양이의 생사를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응시의 순간 고양이가 파동에서 입자로 변한다는 것이다. 고양이가 존재방식이 바뀌는 순간 차원도 달라진다. 관찰 이전(4차원 이상의 세계)에는 주사위에 기입된 숫자들에 내포된 에너지들이 중첩되는 상태로 존재하던 (그리고 슈뢰딩거 방정식을 이용해 확률파동으로 기술할 수 있는) 전자가 관찰 이후(4차원 이하의 세계)에는 특정 조건에서 하나의 숫자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관찰자의 개입으로 포텐셜이 파동의 어떤 지점에서 “수축”한 것이다. 전자를 관찰하는 행위만으로 그 위치가 결정되고 위치가 결정되는 순간 전자가 파동에서 입자로 변하는 관찰자의 패러독스다.<sup>23)</sup>

그렇다면 크립키의 고정 지시 이론의 대안으로 해석학적 확률론을 논하는 자리에서 양자를 이야기하는 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빛이 고유한 파장과 주파수를 지닌 물질인 것 마찬가지로, 의미론의 대상 즉, 의미를 통해 지

---

상자를 열어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고양이는 살아 있는 상태나 죽어 있는 상태 중의 한 상태로 확정된다는 것이다. 관측하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 있는 상태가 중첩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http://www.nobel.or.kr/nobel-story/physics-story/3575.htm>)

- 23) 아인슈타인이 EPR 사고실험을 통해 세상은 관찰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의 연장선에서, 슈뢰딩거는 관찰자의 역할을 반박하기 위해 “슈뢰딩거의 고양이”를 제안했지만 비국소성에 따른 양자 얽힘 현상이 경험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관찰자의 패러독스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양자 얽힘으로 순간 이동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졌고, 구글은 큐비트(쌍으로 서로 얽혀있는 비트)를 최소 정보단위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를 직접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되는 사태(사물, 상황, 사건 등) 역시 뇌에서 그 신경-생물학적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물리적 실체<sup>24)</sup>이며, 따라서 전자의 속성들(불연속성, 불확정성, 확률파동, 비국소성 등)에 비추어 의미론의 대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 3.1.4.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본 의미

의미와 지시는 어디에 속하는가? 전자처럼 미시세계에 거주하는가 아니면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시세계의 구성원인가? 의미는 의식의 소산인가 아니면 뇌의 전기 신호들을 정보 처리한 결과인가? 파동-입자로서의 의미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불확정성과 비국소성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자.

의미가 어떻게 확률파동인지 이해하려면 물질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고, “상자 밖에서 사고”하는 방법으로 필자가 제안하는 건 “우리가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인터랙티브’를 중시하는 민족임을 감안해서 참과 거짓의 진리 값 사이에서 무한히 분할되는 ‘다소 참들’을 인정하는 다치논리(multi-valued logic)<sup>25)</sup>를 의미 연구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의미가 미시세계에서는 확률로, 거시세계에서는 입자

24) 브로카영역과 베르니케영역은 가장 많이 알려진 언어영역일 것이다. 단어의 의미와 관련된 본고와 관련해서 특히 베르니케영역은 언어적 의미를 해독하는 ‘코드’가 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 코드가 손상되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르니케실어증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뇌 영상 촬영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뇌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실제로 오늘날 수백 개의 언어영역이 발견되었으며, 브로카영역과 베르니케영역 말고도 진정한 언어기관(language organs) 후보로는 궁상다발(arcuate fasciculus), 실비안 열(sylvian fissure) 주변부,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 측두엽과 두정엽 그리고 후두엽이 한데 모이는 연합영역 등이 꼽힌다(사카이 구니요시 지음, 이현숙·고도홍 옮김(2012), 『언어의 뇌과학』, 한국문화사; 스티븐 핑커 지음, 김한영·문미선·신효식 옮김(2008), 『언어본능: 마음은 어떻게 언어를 만드는가?』, 동녘사이언스).

25) 윤성노(2016), 「상징화능력의 물리-현상학적 토대 연구 -언어/뇌 관계에 대한 기초학적 소고-」, 『기호학 연구』 46, 한국기호학회, 게재 확정.

로 존재하며, 전기신호에서 의식이라는 상이한 차원으로 의미를 ‘불연속적으로’ 전이시키는 것이 바로 응시(gazing)로서의 해석이다. 그리고 해석의 중심에 “해석소”(interpretant)<sup>26)</sup>의 작용이 있다.

응시 이전의 차원에서 의미는 해석가능성들이 포개져 있는 비결정 상태이며, 이때 그것은 확률적으로만 기술할 수 있다. 확률로만 기술할 수 있다는 건 그 정체성이 본래 불확정적이라는 말이다. 전자의 위치를 쫓 때 속도 정보가 배제되듯, 해석 시에는 공시대(synchrony: 의사소통을 위한 ‘실용적’ 의미)와 통시대(diachrony: 소통의 원리와는 무관한 의미의 역사적 변천 과정)가 서로 배제된 상태에서 유형-의의가 토큰-의미작용으로 도약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어떤 차원(고차원)에서는 확률파동에서 입자로, 다른 차원(저차원)에서는 의의에서 의미작용으로 의미가 해석의 개입으로 그 존재양상을 바꾸는 현상을 필자는 ‘의미 도약’이라 부르고자 한다.

물질이 파동이자 입자로 존재하고 단어 고양이에 상응하는 사물이 죽으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곳은 4차원 이상의 세계이며, 해석의 개입으로 의미가 해석가능성(파동)에서 맥락 의존적 해석내용(입자)으로 “수축”하면서 차원이 교차된다. 그래서 해석활동이 개입함에 따라 차원이 교차되는 현상은 측정 순간 전자가 파동에서 입자로 불연속적으로 도약하는 순간에 견줄 수 있으며, 도약의 순간은 다시 의미, 해석자, 지시체가 비국소성에 따라 원거리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를 뜻한다. 양자 얽힘으로 쌍으로 묶여 있는 전자들이 (빛의 속도로도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원거리에서도 서로를 조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26) “시나리오를 랑그(langue)의 차원에서 유형(type)으로 존재하는 의의(sens)로 간주한다면, 연출 주체들(감독과 배우)과 관객의 상호작용, 즉 전자가 연극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면 관객이 메시지에 피드백을 주는 과정 자체는 빠롤(parole) 차원에서 토큰(token)으로 실현되는 의미작용(signification)이다. 그리고 필자는 맥락이 주어졌을 때 의의가 의미로 구현되는 양상을 해석소로 규정한다.”(윤성노(2016), 「인지기호학적 프랑스어 의미 분석 -언어가 어떻게 몸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가?-, 『불어불문학연구』 105집, 한국불어불문학회, 게재 확정.)

### 3.2. 원형이론

#### 3.2.1. 범주화에 대한 고전 이론의 문제점

새 하면 사람들은 으레 창공을 나는 장면을 먼저 떠올린다. 그렇다면 ‘날 수 있다’라는 속성은 새 범주를 정의할 때 ‘필요조건’으로 간주해야 맞다. 참새나 비둘기라면 문제가 없지만 펭귄은 다르다. 새 범주의 경계에 위치한 펭귄의 구성원 자격 정도(degree of membership)가 낮아 그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시대 이후 2천년 넘게 서구 문화권을 지배해왔으며 범주화에 대한 고전이론으로 알려진 “필요충분조건”<sup>27)</sup>으로는 펭귄이 제기하는 범주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는 달리, 범주 구성원들이 필요충분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범주가 조직될 필요는 없다. 가령 아들이 아버지의 특성을 모두 물려받진 않는다. 눈과 입은 아버지 것을 닮고 코와 이마는 어머니 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가족구성원들은 서로 일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족이라는 범주의 구성원이 된다. 범주 경계를 너무 엄격하게 통제하는 동시에 실체에 대해 본질주의적(essentialist) 접근법을 취하는 고전적 범주화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호한 경계의 문제를 해

27) 필요충분조건이란 특정 범주를 정의해 주며 어떤 대상이 그 범주에 속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속성을 뜻한다. “bachelor”(‘독신자’)를 예로 들어보자(Fillmore, C. J. (1975), “An alternative to checklist theory of meaning” in *Proceeding of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ed Cathy Cogen et al),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pp.128-129). 어떤 사람이 독신자 범주에 속하려면 ‘성인이고’,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들을 충족함으로써 구성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결혼한([+결혼] 성인([+성인])은 ‘기혼자’이고, 결혼하지 않은([-결혼] 성인)은 ‘미혼자’이다. 그렇다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독신자는 아니다.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성인])는 독신자가 아니다. ‘독신자’ 범주를 개별적으로 특징짓는다는 뜻에서, [+성인]은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성인] 단독으로 ‘독신자’ 범주를 온전히 정의할 수는 없다. [-결혼]이라는 속성도 필요하다. [+성인]과 함께 ‘독신자’ 범주를 정의한다는 뜻에서, [-결혼]은 충분조건이다. 이렇듯 어떤 사람을 독신자로 부르기 위해서는 ‘독신자’ 범주를 개별적으로 정의해주는 필요조건(‘성인이다’)과 함께 그 범주를 공동으로 정의해 주는 충분조건(‘결혼하지 않았다’)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결하기 위해 비트겐슈타인이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 개념을 제안하는 이유다(참고로, 세상이 관찰과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믿은 아인슈타인과는 달리, 양자물리학자들이 파동인 동시에 입자로 존재하는 전자의 모호한 속성에 주목하고 전자의 위치와 속도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없기 때문 양자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경계에 대한 사유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여기서 필자는 또 다른 대안으로 원형이론(theory of prototype)을 검토하고자 한다.

### 3.2.2. 원형의 네 가지 용법

원형이론은 1970년대 인지심리학자 Eleanor Rosch와 그녀의 동료들이 진행한 일련의 인지실험결과들<sup>28)</sup>을 토대로 고안된 범주화 이론으로, 그것이 세상에 나온 이후 실험심리학을 넘어 오늘날 인식론적 지형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원형이란 크게 본보기, 심상, 방사형 구조로 이해된다. 가령 참새는 새 범주 특성을 잘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exemplar)다. 하지만 펭귄은 그렇지 않다. 펭귄은 물론 조류지만 비전문가에게 물속을 나는 펭귄을 어떤 범주에 넣어야 할지 판단하는 일은 참새만큼 용이하지 않다. 참새는 또한 구체적인 대상(좋은 본보기)이 아니라 심상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수직상승’, ‘비행가능’, ‘이족보행’, ‘털로 뒤덮인 외피’ 따위의 지각속성들로 구성된 도식처럼 표상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에서 범주가 구조화되는 양상들(범주의 내적 구조와 방사형 구조)을 나타낼 때에도 원형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필자는 특히 원형의 마지막 용법에 주목하고자 한다.

28) Rosch Eleanor H. (1975), “Cognitive representation of semantic categ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04: 192-233 / Rosch Eleanor H. (1973),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4: 328-350. / Rosch Eleanor H. and Caroline Mervis (1981), “Categorization of Natural Objec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2: 89-113 / Rosch Eleanor H. and Caroline Mervis (1975), ‘Family resemblance: studies in the internal structure of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7: 573-605 / Rosch Eleanor H, Caroline Mervis, Wayne Gray, David Johnson, Penny Boyes-Braem (1976), ‘Basic objects in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8: 382-439.

### 3.2.3. 범주의 내적 구조

먼저 원형 범주의 내적 구조는 상위층위, 기본층위, 하위층위에서 위계적으로 조직된다. 예컨대, ‘가구’를 상위층위로 간주한다면, ‘의자’는 책상, 장롱, 침대 등과 함께 기본층위의 범주구성원이고, ‘소파’는 카우치, 체스터 필드, 러브시트, 라운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의자’의 하위층위 범주다.

원형이론이 이론 괄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는 위계적으로 상이한 층위들에서 범주화가 이루어지며 기본층위에서 최적의 범주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크립키의 제안에 따라 후학들이 물질명사(“물”)를 고정지시어 범주에 넣는 것이 진화론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H<sub>2</sub>O, 생수, 수증기, 얼음 등을 구성원으로 갖는 물 범주의 경계가 왜 모호한지 설명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물’ 범주를 특징짓는 속성들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생수 내지 H<sub>2</sub>O는 좋은 본보기로서 최적의 범주화가 일어나는 기본층위의 범주구성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참고로, 범주의 중심에 있는 생수나 H<sub>2</sub>O와 비교해 볼 때 수증기나 얼음은 덜 좋은 본보기들로 주변부에서 범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 3.2.4. 방사형 구조로서의 범주

수평적 차원에서 보면 원형 범주는 방사형 구조의 형태를 취한다. 이때 범주는 이산적(discret) 요소들의 집합이 아니다. 중심에서 주변부로 이동할수록 범주 특성은 더욱 불명확해지고, 경계에 도달하면 정체성이 ‘퍼지’(fuzzy)한 사례들이 분포되어 있다. 퍼지한 범주구성원의 예로 말뚝망둥어를 살펴보자. 이 생명체는 밀물 때에는 물속에 살지만, 썰물 때에는 개펄에서 기거나 뛰기도 하고 심지어 앞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를 손과 뒷다리처럼 사용해 나무를 기어오를 수도 있다. 아가미호흡과 함께 공기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말뚝망둥어는 어류인가 아니면 테트라포드(tetrapod)인가? 말뚝망둥어를 보면 두 개체군(수상생물과 육상

생물의 경계는 생각만큼 엄격하지 않다. 말뚝망둥어가 진화적 예외도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헤엄치는 조류인 펭귄, 알을 낳는 포유류인 오리너구리,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바이러스는 산만하고 어설피게 적응한 결과 범주 경계가 불명확한 개체의 예다. 하늘을 나는 박쥐는 포유류 중 20-25%를 차지하고, 개체수로 따지면 지구 생태계에서 바이러스를 따라올 생명체는 없다. 그리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전자는 파동이자 입자이고 관찰자의 패러독스와 불확정성의 원리가 통용되는 양자의 세계는 고양이와 죽었으면서 동시에 살아 있는 ‘이상한’ 나라다.

필자의 의도는 단어 새가 지시하는 대상이 범주속성을 가장 많이 보유한 좋은 본보기일 수 있고, ‘수직상승’, ‘비행가능’, ‘이족보행’, ‘털로 뒤덮인 외피’ 등 다소 추상적인 속성들로 표상된 심상일 수도 있으며, 혹은 펭귄의 경우라면 조류와 어류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사형 구조로 이해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물질명사)로 지시된 대상에 대한 범주 판단 역시 그리 명확하지 않으며, 단어의 의미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와 특정 맥락에서 쓰인 용법에 대한 대화참여자들의 가치 평가적 판단의 일치가 대상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 3.3. 근본적 인지 기제로서의 은유

#### 3.3.1. 은유에 대한 인지주의적 재해석

현대 사상가들은 은유를 단지 미사여구로 보지 않는다. 예컨대, 레이코프와 존슨<sup>29)</sup>은 철학자들이 은유를 언어적 테두리 내에서만 보거나 시적 표현 정도로만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경험을 토대로 현실을 구축함에 있어 특히 공간은유를 근본적인 인지-지각 메커니즘으로 간주한다. 야콥슨<sup>30)</sup> 역시 동일 계열의 요소들이 “유사성”(sim-

29) Lakoff, G. & Mark, J. (1980),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30) Jakobson, R. & Halle, M. (1956), *Fundamentals of language*, Publisher Mouton.

ilarity)에 따라 서로 연상(은유)되고, 서로 다른 계열들에서 선택된 요소들은 “인접성”(contiguity)에 따라 대조(환유)됨으로써 언어기호의 가치가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한편, 은유를 환유와 함께 언어가 구조화되는 근본 원리로 상정하는 야콥슨을 따라 라강은 유사성을 토대로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의 형상으로 “압축”(condensation)하고, 인접성에 따라 어떤 형상을 다른 형상으로 “전치”(displacement)시키는 방식으로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된다고 주장한다.<sup>31)</sup> “사실 언어에는 경험(사건이나 사태)을 자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기능이 있”<sup>32)</sup>는데, 이를 두고 흄볼트<sup>33)</sup>는 범주화(energeia)라고 부른다.

### 3.3.2. 은유적 범주화

범주화의 주된 목적은 최소의 인지비용을 들여 최대 정보를 얻는 데 있는데, 정형화된 방식으로 자극을 정보 처리하는 것은 경제 원리에 부응하는 방법이다. 정형화된 정보 처리란 각각자가 속한 문화 집단에 고유한 지식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예전에 이미 처리된 적이 있는 다른 자극들과 비교해서 현재의 자극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은 다른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미지의 어떤 것을 익히 알려진 다른 것으로 범주화함으로써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변형시킬 때 유용한 표상 도구가 바로 은유(metaphor)다.

“아킬레스는 사자다”를 예로 들어보자. 아킬레스(A)는 사람이고 사자(B)는 동물이므로 범주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별도의 장치 없이 상이한 범주

31) Lacan, J. (1966), *Écrits, Le Seuil*, Paris; 손 호머 지음, 김서영 옮김(2006), 『라강 읽기』, 은행나무, pp. 83-84.

32) 윤성노(2015),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통합기호학적 비판 및 문화경영적 대안」, 『기호학 연구』 45, 한국기호학회, p. 237.

33) Humboldt, W. V. (1999[1836]), *On Language. On the Diversity of Human Language Construction and its Influence on the Mental Development of the Human Species* (edited by Michael Lososky), Cambridge University Press.

구성원들을 동일시하는 건 논리적 오류이다. 그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은유다. 은유를 통해 A, B를 연결하려면 공통 속성을 연상할 수 있어야 한다. 아킬레스와 사자가 각각 전쟁터와 사냥터에서 보이는 모습, 예컨대 용맹스러움, 민첩함, 잔인함 등이다. 이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B의 성질(존재)이 은유(언어)를 통해 A의 개념(사고) 영역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이다.

### 3.3.3. 현존과 부재의 변증법

범주화의 관점에서 은유가 흥미로운 건 알려진 어떤 것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은 다른 어떤 것을 사유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A, B의 공통 특성(용맹, 민첩성, 잔인함)은 두드러지게 하고 다른 특성들(가령 아킬레스의 인간미나 암사자의 모성애)은 숨기기 때문이다. 어떤 속성은 두드러지게 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은 은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은유적 범주화를 토대로 구축되는 인간의 지식은 그래서 단편적이다. 하지만 세계에 대한 단편적 지식과 불완전한 인식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다. 신이라면 전지적 시점에서 모든 가능세계에서 항상 동일한 대상을 ‘보고’ 엄밀하게 지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상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은유를 통해 어떤 것은 두드러지게 하는 동시에 다른 것은 숨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숨겨진 속성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물론 아킬레스와 사자가 개념적으로 비슷하다는 점이 부각되지만 범주적으로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도 활용된다. 은유적 치환이 단순한 연결도 아니다. 치환을 통해 A를 B로 변형시킨다는 것이 은유가 지닌 진정한 범주화의 힘이다. 환유(metonymy)<sup>34)</sup>와 비교해서 은유가 더 공상적이고 초현실적인 효과(‘아

34) 은유가 연상법칙에 따라 기지의 것으로 미지의 것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 환유는 드러난 것(in presentia)으로 하여금 인접해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나머지(in absentia)를 대신함으로써 전체를 드러내는 기호이다. 기야로 허덕이는 에디오피아 아이의 모습을 담은 유네스코 공익광고 사진을 예로 들자면, 아이(에디오피아의 부분)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에디오피아(전체)를 대신하는 환유이다. 또한 은유는 구성에 있어 상징성이 강해서 공상적이고 초현실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데 유리한

킬레스가 고귀한 영웅인 동시에 미천한 동물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이런 변형이 있어 가능하다. 그래서 예컨대 “아킬레스는 관우다”는 좋은 은유는 아닐 것이다. 비교대상이 개념적으로도 그리고 범주적으로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아킬레스는 사자다”가 훌륭한 은유인 까닭은 아킬레스는 (개념적으로는) 위엄 있고 용맹한 영웅이지만 동시에 (범주적으로는) 미천한 동물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유의 묘미는 결국 차이와 유사점, 이질성과 동질성, 현존과 부재 사이의 황금 비율에 있다 할 수 있는데, 황금 비율은 문화마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은유가 진리를 더 잘 표상하는지는 형이상학적 필연의 문제가 아니다. 경험을 통해 우연히 입증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세종 사후 신하들이 그의 시호를 정하거나 마야인들이 금성을 지칭하기 위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처럼 말이다.

## 4. 결론

### 4.1. 개체(군)는 어설프고 산만하게 적응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적자생존과 승자독식을 진화메커니즘과 동일시하곤 하지만, “불완전한 설계”, “산만함과 어설편”이야말로 진화의 본질을 더 잘 보여준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어설프게 적응한 결과 범주 경계가 모

---

데 비해, 환유는 도상이나 지표에 가까운 기호이기 때문에 기호 해석자의 마음에 현실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부분에 노출된 자료 하여금 드러난 것에 멈추지 않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감춰진 전체를 유추해서 드러나기 않은 부분을 채우게 만들기 때문이다. 해석자가 환유를 통한 의미 생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시적인 것에서 비가시적인 것으로 사유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행동(기부를 유도하는 것이 광고의 목적임을 상기하자)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환유가 지닌 사역적(factive) 힘이다.

호한 생명체들(말뚝망둥어, 펭귄, 박쥐, 오리너구리)의 생존방식에 진화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인식론의 차원에서는 가장 잘 적응하는 개체와 가장 나쁘게 적응하는 개체 사이에서 주어진 환경에 필요한 만큼 그럭저럭 적응하는 무수히 많은 개체들(‘부적자들’)에게 적자와 동등한 권리를 되돌려 줌이 마땅하고, 철학적 의미론의 차원에서는 언어를 통해 모든 가능세계에서 항상 동일한 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는 신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 4.2. 사물의 속성은 언어 사용 환경에 달려있다

의미는 사물의 종속변수가 아니고, 사물이 언어 사용자에 대한 독립변수도 아니며, 언어가 단순히 사고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단어로 의미된 대상은 우리가 삶의 경험을 특정한 패턴으로 인식하는 방식에 의해 범주화된 상태의 사물이다. 우리가 보는 사물은 사물이 쓰임새를 갖는 사회-문화적 환경, 신체가 사물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사회화를 거치면서 의미를 부여받은 사물의 심적 상관물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물”(단어)은 ‘물’(사물)을 엄밀하게 지시하지 않는다. 좋은 본보기, 도식화된 심상, 방사형 구조로 의식에 나타날 수 있는 대상의 정체성은 언어 사용 맥락에 많이 좌우된다.

#### 4.3.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어의 의미에 영향을 준다

범주적으로 모호한 식물의 지각속성이 상응하는 단어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암시하지만, 필자는 식물 범주 구성원들(extensions)에 대해 언어 사용자들이 취하는 사회-심리적 태도(connotation)가 범주를 개념적으로 정의해주는 속성들(intensions)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범주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개체를 놓고 식물학

자들이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지(그리고 그런 과학적 논쟁의 결과물들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수용되고 전파되는지)에 따라 식물에 대한 심적 연상 작용이 달라지고, 심상이 바뀌면 식물 개념을 결속시켜주었던 속성들이 변하며, 변화된 속성들은 다시 단어 식물의 사전적 정의(denotation)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포와 외연, 심상과 의소(semantic features)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면 결과적으로 단어 식물을 포함하는 “모든 문장에서 우리에게 그 단어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할 것이다.

#### 4.4. 언어로 지시되는 대상은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관념의 세계와 사고 과정은 대부분 은유적이라서 의식적이든 무의적이든 우리는 경험을 은유적으로 재가공함으로써 ‘우리’의 현실로 변형시킨다. 또한 사회화를 거친 인간이라면 은유적으로 축조된 현실 안에서 생각하고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은유 자체가 진리를 표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은유적으로 재구성된 세계의 거주민들은 “삿별과 개밥바라기가 같은 별이다”처럼 동어반복 식으로 진리를 탐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범주 차이로 기인하는 해석의 가능성은 열어둔 채 아킬레스를 사자와 개념적으로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그와 관련된 세계에 대한 지식을 구축하고 그렇게 모델링된 인식 체계 안에서 정체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아킬레스와 사자의 차이를 배경으로 공통 속성을 연상하는 언어 사용자들(메시지 발신자와 수신자)이 의미를 놓고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지시체는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 4.5. 의미는 불확정적이면서 비국소적이다

의미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양쪽에 걸쳐 있는 물리-현상학적 실체이며, 미시세계에서는 양자를 물리적 토대로 하는 해석가능성들의 중첩 상

태로 존재하고, 거시세계에서는 유형-의의가 토큰-의미작용으로 전이된 상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전이 현상은 뉴런 망을 통해 신경-생물학적 전기 신호들이 정보 처리되는 과정(4차원 이상)이 의식(그 이하의 낮은 차원)으로 불연속적으로 도약하면서 확률파동으로 존재하던 의미가 의미요소(내포, 외연, 의소 등)라는 입자로 수축된다는 것을 뜻하며, 불연속적 의미 도약으로 인한 수축의 중심에는 해석자의 응시가 있다. 그리고 차원 교차에 따른 의미 도약 및 수축은, 마치 양자 얽힘으로 묶인 전자들이 원거리에서도 서로의 물리량을 결정하는 것처럼, 의미 전달체인 언어기호(sign-vehicle), 기호 해석자, 기호로 지시된 대상이 언어놀이가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환경(Umwelt) 속에서 비국소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진화함을 전제로 한다.

## 참고문헌

- 계리 솔 모슨, 캐릴 에머슨 [공]지음(2006), 『바흐친의 산문학』, 오문석, 차승기, 이진형 [공]옮김, 책세상, 서울.
- 데이비드 암스트롱 지음, 유원기 옮김(2015), 『어느 물질론자의 마음 이야기』,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 박영선(2006), 『쉽게 풀어쓴 파동이야기』, 예영커뮤니케이션.
- 사카이 구니요시 지음, 이현숙·고도홍 옮김(2012), 『언어의 뇌과학』, 한국문화사.
- 손 호머 지음, 김서영 옮김(2006), 『라캉 읽기』, 은행나무.
- 스티븐 핑커 지음, 김한영·문미선·신효식 옮김(2008), 『언어본능: 마음은 어떻게 언어를 만드는가?』, 동녘사이언스.
- 윤성노(2016), 「인지기호학적 프랑스어 의미 분석 -언어가 어떻게 몸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가?-, 『불어불문학연구』 105집, 한국불어불문학회, 게재 확정.
- \_\_\_\_\_(2016), 「상징화능력의 물리-현상학적 토대 연구 -언어/뇌 관계에 대한 기호학적 소고-, 『기호학 연구』 46, 한국기호학회, 게재 확정.
- \_\_\_\_\_(2016), 「복잡계로서 문화 연구를 위한 범시적 언어 연구 -차용어를 통해 본 프랑스적 다양성-, 『프랑스학연구』 75집, 프랑스학회.
- \_\_\_\_\_(2015),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통합기호학적 비판 및 문화경영적 대안, 『기호학 연구』 45, 한국기호학회.
- \_\_\_\_\_(2015), 「복잡계로서 단어의 의미론적 정체성에 대한 학제적 연구 -구조 의미론, 분석철학, 해석기호학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44, 한국기호학회.
- \_\_\_\_\_(2015), 「정의를 관점에서 문화연구자는 문화시장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콘텐츠에 대한 사회기호학적 소고-, 『기호학 연구』 43, 한국기호학회.
- 정대현(2001), 『필연성의 문맥적 이해』, 한국학술정보.
- Fillmore, C. J. (1975), "An alternative to checklist theory of meaning" in *Proceeding of the First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ed Cathy Cogen et al), Berkeley Linguistics Society.

- Jakobson, R. & Halle, M. (1956), *Fundamentals of language*, Publisher Mouton.
- Kripke, S. (1980), *Naming and Necessit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_\_\_\_\_ (1971), "Identity and Necessity" in M. K. Munitz (ed.), *Identity and Individuation*, New York University Press, New York.
- Lacan, J. (1966), *Écrits*, Le Seuil, Paris.
- Lakoff, G. & Mark, J. (1980),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Putnam H. (1975), "The Meaning of 'Meaning'" in *Mind, Language and Re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Rosch Eleanor H. (1975), "Cognitive representation of semantic categ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04: 192-233.
- \_\_\_\_\_ (1973),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4: 328-350.
- Rosch Eleanor H. and Caroline Mervis (1981), "Categorization of Natural Objec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2: 89-113.
- \_\_\_\_\_ (1975), 'Family resemblance: studies in the internal structure of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7: 573-605.
- Rosch Eleanor H, Caroline Mervis, Wayne Gray, David Johnson, Penny Boyes-Braem (1976), 'Basic objects in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8: 382-439.
- Russell, B. (1905), "On Denoting", *Mind*.
- Wittgenstein, L. (1978),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Anscombe G .E. M. and Rhees R.(eds.), Anscombe G. E. M.(trans.),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1974), *Philosophical Grammar*, Rhees R.(ed.), Kenny A.(trans.), Oxford University Press.
- Yule, G. (2014), *The study of language*,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fifth edition).

원고 접수일: 2016년 1월 4일

심사 완료일: 2016년 1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6년 1월 27일

ABSTRACT

---

## Criticism on Kripke's Theory of Rigid Reference and Hermeneutic Probability

Youn, Sung No\*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critically the theory of referential rigidity by Kripke on the one hand, and to propose an alternative of hermeneutic probability on the other hand. For that matter we begin by introducing Russell's descriptivist theory of reference in order to explain what are the first and second genesis of proposition. It is also necessary for us to show why Kripke coins the key concept of rigid designator and makes a difference between rigidity "de facto" for rigidity "de jure" as well as strong necessity and weak necessity. We think the exposé made this way offers a better way of understanding that a proper name does not have the same meaning as the corresponding definite description, contrary to Russell's thought. These themes constitute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ts second part is dedicated to putting into question Kripke's theory of rigidity. First we account for the reason why an interactionist theory of language is better than its nominalist or ego-centered perspective one. It

---

\* Senior researcher, Division of Partnership between Schools and Businesses, Soongsil University

is also relevant for us to adopt an evolutionary viewpoint in order to emphasize the fuzziness of categories. Furthermore some problems are indicated that may well occur if one does not carefully distinguish things like ontological entity, categorial attributes one gives to that entity, propositional content by means of which the attributes are expressed, and propositional attitude the speaker adopt with respect to what she says. The final point of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lies in demonstrating that such an identity statement as “Hesperus and Phosphorus are the same planet” might represent the metaphysically necessary truth but not a posteriori attested one, a counter-argument which goes against Kripke’s. In the third part of this paper, we try to support our thesis that words do not designate rigidly but in a manner of hermeneutic probability on the basis of quantum physics, theory of prototype, and metaphor regarded as fundamental cognitive mechanism. In conclusion our position is made clear concerning relations among language, mind, world.

